

45번째, 농기구이야기

곡식을 저장하는 ‘나락뒤주’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12.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뒤횈의 개념과 역사

가을에 거둔 곡식을 갈무리하여 저장하는 가구를 뒤횈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나락뒤횈은 야외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둘러막고 이엉으로 지붕을 덮은 시설이다. 나락은 쌀을 뜻하는 말로 경남, 전라, 충청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나락뒤횈은 지역에 따라 나락두지(경상남도 영산), 두대통·벗두지(전라남도 보성), 독집(전라북도 진안)이라고 부른다.

뒤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섬이나 먹서리에 담아 곳간에 쌓아두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섬 대신 가마니를 사용하다 근래에는 40킬로그램짜리 마대나 폴리비닐 포대를 사용한다. 또 최근에는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대형 포대나 탱크에 담아 곧바로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건조하고 저장하는 가공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장화리 나락뒤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나락뒤횈의 형태

나락뒤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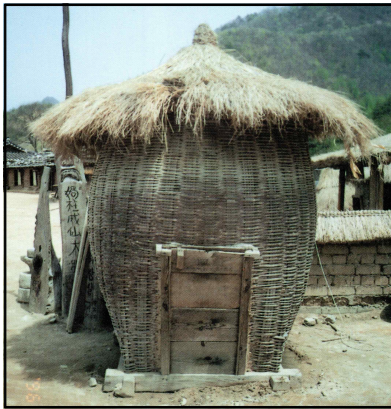
첫째, 마당 한 쪽에 두툼하게 짚을 깔고 짚으로 엮은 날개를 둘러 울을 세운 다음 그 안에 나락을 채우고, 지붕은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이엉을 덮고 꼭대기에는 고깔 모양의 덮개를 덮는 방식의 일종의 임시저장고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이를 벗두지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독집이라고도 부른다. 울을 짚으로 엮은 날개를 쓰지 않고 멍석으로 두르는 방식도 있다.

둘째, 한 칸 또는 서너 칸의 마치 작은 집처럼 지은 시설로, 사방의 벽을 널빤지로

하고 한쪽 벽의 설주에 흠을 파서 여러 개의 쪽널을 차곡차곡 끼워 넣어 문으로 사용한다. 지붕은 기와나 이엉으로 덮고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주 바닥을 땅에서 30~50 센티미터를 띄운다. 집 모양의 나락뒤주에는 벽에 '적소성대(積小成大)'와 같은 글귀를 쓰거나 주련으로 써서 기둥에 달기도 했다.

셋째, 살림집의 방 한 칸을 뒤주로 쓰는 방식으로 곡식을 꺼내는 문에는 쪽널을 끼운다.

넷째, 대쪽으로 향아리처럼 큰 그릇을 만들고 틈새를 진흙으로 발라 나락이 새지 않도록 하고, 앞쪽 가운데로는 쪽널 문을 낸다. 큰 것은 열 섬 이상의 나락을 갈무리할 수 있다.



독형 나락뒤주(좌)와 집형 나락뒤주(우) © 한국농기구도감

3. 여러 갈무리 방법

나락뒤주와 비슷한 형태로는 통가리가 있다. 통가리는 쭉대나 싸리, 뚝 따위를 새끼로 엮어 땅에 둥글게 둘러치고 그 안에 감자 따위의 곡식을 채워 쌓은 더미이다. 주로 감자나 고구마 같은 작물을 갈무리하는데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벼와 보리 같은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였다.

통가리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하는 일종의 시설물로 싸리, 수수깡, 쭉대 따위로 촘촘히 엮은 발로 울을 만들어 그 안에 농산물을 담아 저장한다. 곡식을 저장하는 통가리는 짚으로 울을 만든다.



<통가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구도감』, 2001.

한국무속박물관 「조선의 재래농구」, 1995